

교육서비스업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인하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733
------	-----

2009년 2월 24일
교육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9년 1월 9일, 양창호 의원 외 10인

나. 회부일자 : 2009년 1월 15일

다. 상정일자 : 제213회 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
(2009년 2월12일 상정, 채택)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양창호 의원)

가. 주문

- 2007년 12월 31일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08년부터 소득공제대상에 학교급식비, 학교 교과서 구입비, 방과후학교 수업료 등이 포함됨에 따라 학부모들의 교육서비스업에 대한 카드납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교육서비스업에 대한 카드수수료율이 타 업종에 비해 높게 책정되어 있어 카드납부를 기피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나. 제안이유

- 세법이 개정되어 2008년부터 소득공제대상에 학교급식비, 학교교과서 구입비, 방과후 학교 수업료 등이 포함되어 학부모들의 교육서비스업에 대한 카드납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교육서비스업에 대한 카드수수료율이 타 업종에 비해 높게 책정되어 있어 업종 간의 수수료율 책정에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수수료 때문에 카드납부를 기피하는 현상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음.
-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고율의 카드수수료율 때문에 학교급식비 등에 대해서 학부모 및 학생이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현금영수증을 수령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며, 각급학교는 교육비의 카드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학원비 등 사교육비의 투명한 노출과 서민들의 학교 급식비 등의 카드이용을 권장하기 위해 카드수수료율을 인하할 것을 촉구함.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동수)

- 동 건의안은 2007년 12월 31일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08년부터 소득공제대상에 학교 급식비, 학교교과서 구입비, 방과후학교 수업료 등이 포함됨에 따라 학부모들의 교육 서비스업에 대한 카드납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육 서비스업에 대한 카드수수료율이 타 업종에 비해 높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 지난 10여 년간 투명한 금융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해 도입된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장려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신용카드 사용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신용카드 사용의 확대에 의한 수수료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의 수익은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에는 수수료 부담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신용카드업자들이 책정한 신용카드가맹점의 수수료율이 동종업체 간에도 상이하고 책정기준도 모호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여신금융협회는 정기적으로 업종별 카드수수료율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학원비 등 교육서비스업에 대한 카드수수료율이 타 업종보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음.

- 교육서비스업 중 일반가맹점의 평균이라고 할 수 있는 중간 비율을 살펴보면, 롯데카드 3.05%, BC카드 3.24%, 삼성카드 3.30%, 현대카드 3.00%, 국민카드 3.00%, 신한카드 3.19%, 외환카드 3.29%, 우리카드 3.24%로 최저 3.05%에서 최고 3.29%까지 책정되어 있는 반면,
- 숙박 및 음식점업 중 일반가맹점의 평균을 살펴보면, 롯데카드 2.70%, 삼성카드 2.65%, 현대카드 3.00%이고, 운수업의 경우에는 롯데카드 3.00%, 삼성카드 2.65%, 현대카드 2.50%로 책정되어 있음.
- 또한 통신업의 경우에는 롯데카드 2.70%, 삼성카드 2.65%, 현대카드 2.50%이고,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에는 롯데카드 2.70%, 삼성카드 2.70%, 현대카드 2.80%로 책정되어 있음.
- 일반적으로 유흥 및 사치업이나 부동산 및 임대업에 대한 수수료율이 높은 것은 납득할 수 있으나, 숙박 및 음식점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이 교육서비스업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 많은 시민들은 쉽게 이해할 수 없을 것임.
-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교육비만은 줄이지 않겠다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교육에 대한 투자가 가계경제의 주요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서비스업에 대한 고수수료는 교육에 대한 불평등을 초래할 소지가 있음.
- 더욱이 2007년 12월 31일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08년부터 학교급식비, 학교교과서 구입비, 방과후학교 수업료 등이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었으나 학교행정실의 수납교무의 부담과 더불어 높은 카드수수료율 때문에 일선학교에서는 카드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경제위기 속에서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의 형평성을 담보하며 카드사용의 활성화를 장려한다는 차원에서 교육서비스업에 대한 카드수수료율을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질의 : 학교급식비, 학교교과서 구입비, 방과후학교 수업료 등의 카드납부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검토해본 적이 있으며, 이에 대해 교육청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해본 적이 있는가?
- 답변 : 현재 CMS를 이용한 납부는 시행하고 있으나 카드납부는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